

美-우크라 “평화 프레임워크 마련…우, 주권 온전히 보장”

공동성명 “양국 대표단 제네바 협의 매우 생산적…의미있는 진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시간) 4년 가까이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우크라 회동에 대한 공동성명’ 자료를 내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제네바에서 미국 측 평화 제안 협의를 위해 회동했다”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양측은 업데이트되고 정교화된 평화 프레임워크(peace framework)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평화 구상안 협상을 진행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댄 드리스콜 미 육군장관 등도 회동에 참석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양국은 성명에서 “이번 회담은 건설적이고 집중적이며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에 대한 양측의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협의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명확한 향후 조치를 도출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어떠한 향후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

을 온전히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전쟁과 인명 피해를 끝내기 위한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이고 확고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국은 향후 며칠간 평화 프레임워크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유럽 파트너 국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평화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종 결정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대통령이 내릴 예정이라고 성명은 밝혔다.

또 백악관은 제네바 협의 결과를 소개하는 설명자료에서 “루비오 장관과 그의 팀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안보, 미래 번영이 현재 진행 중인 외교 프로세스의 중심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백악관은 이어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회의에서 안전 보장, 장기 경제 개발, 인프라 보호, 항해의 자유, 정치적 주권 등 모든 주요 관심사가 철저히 다루졌다고 확인했다”며 “우크라이나 대표들은 오늘 이뤄진 수정과 설명을 바탕으로 현재 초안이 자국의 국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집행 가능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베트남 중부 닥락성 호아틴사에서 홍수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식을 앞두고 사람들이 트럭에서 관을 내리고 있다. 베트남 환경부는 며칠간 폭우와 산사태 발생 후 23일(현지시간) 대규모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90명으로 증가했으며 12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베트남 홍수·산사태 사망자 91명…실종 11명

재산 피해액 7천300억원 추정

최근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91명으로 늘었다.

24일(현지시간) AFP·UPI 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재해방재청은 최근 중부 지역에서 홍수와 산사태로 9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예조 지난 22일까지 10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 상태였으나 주말 사이에 사망자 수가 더 늘었다.

사망자 가운데 60명 이상이 중남부 닥락성에서 발생했다고 베트남 환경부는 덧붙였다.

또 이번 홍수와 산사태로 주택 21채가 무너

졌고, 933채는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피해는 유명 관광지 달랏이 있는 중부 고원지대 럼동성에서 주로 일어났다고 UPI는 전했다. 또 홍수로 20만1천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의 대부분은 닥락성에서 발생했다.

닥락성에 사는 막 반 시(61)는 아내와 함께 철제 지붕 위에서 이틀 동안 고립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AFP에 “동네가 완전히 파괴됐다”며 “모든 게 진흙에 덮였고 남은 게 없다”고 말했다.

중남부 푸옌성 푸이호아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보 후 두(40)씨는 “1993년 홍수 때 물이 발목 높이까지 찼는데 이번에는 1m 넘게 물이 차올랐다”며 “물건들이 다 젖어 엉망진창이 됐다”고 말했다.

베트남 당국은 벼농사 피해 규모는 815㎢이며

다른 작물 피해 규모는 1천167㎢라고 설명했다.

또 홍수로 11만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으며 이날까지 25만8천가구는 여전히 정전 상태라고 덧붙였다.

전날까지 중부 지방 인근 국도 여러 구간에서 차량 통행이 차단됐고, 일부 철도 노선에서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베트남 당국은 이번 홍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억9천600만달러(약 7천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팜 민 쩌 베트남 총리는 재해 복구 작업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각 부처와 지방 정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런던 관광세 도입할 듯…관광업계 반발

주요 7개국(G7)의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관광세가 없는 영국 런던에도 조만간 관광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레 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현재 의회 통과 절차를 밟고 있는 분권화 및 지역사회 권한 강화 법안을 통해 각 도시에 관광세 도입을 가능하도록 관련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사이드 칸 런던시장은 런던 관광세 도입을 위해 지자체장에 권한 이양을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온 인물 중 하나다.

칸 시장 측은 런던 관광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 추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관광세 도입 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환영의 뜻을 함께 밝혔다.

G7의 주요 도시인 파리, 뮌헨, 밀라노, 토론토, 뉴욕, 도쿄는 부과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현재 모두 관광세를 걷고 있다.

런던이 어떤 종류의 관광세를 징수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런던 시당국에 따르면 2017년 방문객을 기준으로 하루 1파운드의 정액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연간 약 9천100만 파운드(1천753억원)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숙박비에 5%의 세금을 매기면 약 2억4천만 파운드(4천621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런던시 당국은 인기 있는 도시를 찾는 사람들은 관광세에 크게 민감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들며 관광세를 도입해도 관광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이와 달리 런던의 관광업계는 관광세 도입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런던 호텔 산업을 대표하는 ‘영국 호스피탈리티’의 케이트 니콜스 회장은 “이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부가가치세(VAT)는 20%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관광세)는 세금 위의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고객들은 이미 가장 높은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우리가 세금으로 사람들이 런던에 오지 못하게 막는다면 일자리와 성장, 투자를 빼앗는 세금을 부과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38노스 “영변 핵시설 확장·현대화 지속 진행…열교환기 설치”

북한의 주요 핵시설인 영변 원자력연구단지가 시설 현대화, 확장 작업을 연중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보도했다.

38노스에 따르면 10·11월 촬영된 상업 위성사진을 기존 사진과 비교한 결과 영변 원자력 단지 곳곳에서 활발한 시설 개선 작업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방사화학실험실(RCL) 북동쪽의 신규

우라늄 농축 시설 추정 건물 주변은 올해 시설 개선 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이 건물은 앞서 6월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포착된 바 있다. 최소 2층 높이에 120m×47m 면적의 대형 건물로, 북한 새로 건설하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10월22일, 11월13일 등 최근에 해당 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서는 6월 당시 미완 상태였던

부속 건물들의 외관도 완성된 모습이 확인됐다.

차고, 건물 사이를 잇는 폐쇄형 통로 등이 추가되고, 건물 주변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마감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 건물에 열교환기로 보이는 장비 6대가 설치된 사실도 확인됐다. 열교환기는 우라늄 농축에 필수인 원심분리기의 열을 식히고, 건물 내부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쓰이는 장비다.

/연합뉴스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교육과정			
2 급 지도자 과정	28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1 급 지도자 과정	36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초급완성반과정	12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15회	1:1지도/3회 사전예약
초급원포인트과정	6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6회	1:1지도/2회 사전예약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송 실기실습/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 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